

석유화학, 엔저로 수출타격 우려

HRI, 달러당 100엔이면 무역수지 15억달러 감소 ... 자동차는 안전

엔화가치 하락으로 석유화학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<엔저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>에 따르면, 2013년 엔화가 달러당 연평균 100엔으로 상승하면 석유화학산업의 무역수지는 15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

특히, 중간재의 무역수지 감소 압력이 커 철강, IT, 석유화학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, 자동차와 가전 및 기계는 엔저에 따른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분석했다.

자동차는 일본기업의 현지 생산비중이 높아 엔저에 따른 일본기업의 자동차 가격경쟁력에 큰 변화가 없고, 가전은 한국산의 경쟁력이 일본산보다 높아 환율 변동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.

2013년 엔화가 연평균 100엔으로 오르면 국내 총수출은 5334억달러로 2012년에 비해 2.6% 줄어들고, 총수입은 5066억달러로 2.5%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엔저는 국내 수출을 수입보다 크게 감소시켜 연평균 100엔일 때 무역수지는 268억달러로 2012년에 비해 15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.

연구진은 단기적으로 엔저 피해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, 장기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6/04>